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발행(2019. 9. 30)  
제2019-8월호(통권 48호)

#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 ISSUE PAPER

### 스포츠산업 인력 공급의 새로운 바람 : 체육전공 입시제도의 변화

작성: 김세훈(경향신문)

- I 국내 체육대학 입시 현황
- II 체육대학 수시입시에 대한 견해 및 방침
- III 맺음말

## 요 약

연간 대학 수험생은 약 55만명으로 그 중 체대 지원 인원은 매년 4만명 규모로 추산되며, 전국 체육대학이 뽑는 인원은 특기자 2,000명 정도를 포함해서 8,400명 안팎이다. 체육대학 입시학원 등 업계 분석에 따르면 현재 수시로 선발하는 신입생은 전체 40% 정도다. 대학교 수시 입학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수시 선발 인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선 대학들은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갖춘 신입생을 뽑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정시에 비해서 다양한 경험과 재능, 취향, 비전 등을 가진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학이 수시입학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수시 전형을 효과적으로 만들 경우 학생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을 높일 수 있다. 입시 경쟁률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실시하는 대학 평가에서 주요지표로 꼽힌다. 생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대학으로서는 높은 입시 경쟁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체육대학 수시전형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도 다양한 인재를 원하고 있고 대학과 학생도 이런 추세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실기시험 비중 축소 및 간소화 등 형태로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지금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이끄는 수시 전형 확대 움직임은 수도권 다른 대학교에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된다. 다만 학생 모집에 난항을 겪는 지방대학교가 이런 움직임에 쉽게 동참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다. 체대 수시 입시는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체육 교사, 진로상담 교사들부터 체대 수시 입시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스포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별도 반을 꾸려 운영하는 체육중점학교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체대 입시학원들도 기존 실기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수시 입시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접근법을 연구하면서 수행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산업은 성격 상 다양한 전공자와 다양한 배경의 인력들이 모여든다. 그 중에 체육 관련 전공자들은 그들의 자율적 의지와 산업 경영자의 의지, 그리고 산업 환경 상품과 서비스 내용의 지향점 등이 결합하여 그들의 채용을 요구하게 된다.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력과 실기 기술을 익히기 위한 준비를 통해 선발되어야하고 입학 후에는 이를 원숙하게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체육전공자의 정체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방식의 체육전공자 선발과정이 일부 대학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새로운 체육전공자 선발 방식은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정체성을 갖춘 인력을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변화의 양상은 스포츠산업 인력으로서 중추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모습의 인력을 보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변화될 새로운 양상의 인력 공급방식을 돌아보고 스포츠산업에 공급될 인력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 이번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를 구성해 본다.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편집위원회>

## 1. 국내 체육대학 입시 현황

현재 연간 대학 수험생은 약 55만명이다. 재학생이 40만명, 재수생 이상이 15만명이다. 그중 체대 지원 인원은 매년 4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전국 체육대학이 뽑는 인원은 특기자 2,000명 정도를 포함해서 8,400명 안팎이다. 체육대학 입시학원 등 업계 분석에 따르면 현재 수시로 선발하는 신입생은 전체 40% 정도다. 업계는 내년 입시에서는 수시 선발 인원이 50%를 넘으리라 전망한다.

대학교 수시 입학은 1996년부터 시작됐다. 체육대학 입시도 이에 맞춰 조금씩 변화했다. 2020년 체육계열 수시 입시 특징은 △수시선발 인원 증가 △학생부종합전형 정착 △면접 반영 비율 감소 등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비슷하게 보여온 특징들이다.

정책적으로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전형을 제외하면 체육대학 수시 전형은 크게 다섯 가지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이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심 내신 성적과 다양한 활동 내역이 필요하다. 실기시험은 없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적잖다. 일반적으로 1차에서 서류 100%로 모집인원 3~5배수를 뽑는다. 경쟁률은 대부분 대학교에서 두 자릿수다. 몇몇 대학교는 세자릿수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두 번째는 학생부교과전형이다. 내신성적을 주로 본다. 실기시험은 거의 없으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부분 있다. 실기우수자전형은 내신성적과 실기를 함께 본다. 일반적으로 내신성적 20~40%, 실기 60~80% 정도다. 실기는 기초 실기가 중심이다. 많은 대학이 종목과 상관없이 다양한 종목에서 운동능력이 뛰어난 신입생을 뽑기 위해 활용하는 전형이다.

논술전형은 내신 30% 정도에 논술 비중을 70% 안팎으로 높게 두는 전형이다. 지난해 체대 수시 입시에서는 경희대, 외국어대 등 두 곳만 이 전형을 실시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적 사고가 가능한 학생을 뽑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다.

마지막은 학생 선수, 즉 특기자전형이다. 대학 등록금 면제, 기숙사 이용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오르지 못한 학생이라면 명문대 입학은 기대하기 힘들다. 특기자전형은 인원과 종목 모두 줄어드는 추세다. 그래서 일부 대학은 특기자전형이 아닌 실기우수자 전형으로 학생 선수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수시 선발 인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대학들은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갖춘 신입생을 뽑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우수자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등 다양한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단순히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정시에 비해서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재능, 취향, 비전 등을 가진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신 송곡고등학교 체육 교사는 “내신성적, 수능 점수가 다소 낮아도 다양한 경험과 준비 과정 등을 앞세워

입학을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수시”라며 “수시를 선호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으며 체육대학도 이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시 원서 접수는 일반적으로 9월 초까지다. 최대 6개 대학까지 원서를 낼 수 있다. 원서 접수 비용은 보통 7만원 안팎이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에 응할 수 없다. 그래서 수시는 상향, 적정, 하향을 섞어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향 지원에서도 합격할 경우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고 다닐 대학을 택해야 한다.

대학이 수시입학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수시 전형을 효과적으로 만들 경우 학생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을 높일 수 있다. 입시 경쟁률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실시하는 대학 평가에서 주요지표로 꼽힌다. 생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대학으로서는 높은 입시 경쟁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정시 경쟁률보다 수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수도권 유명대학 체대 입시 경쟁률도 정시는 한 자릿수인 반면, 수시는 대부분 두 자릿수, 심지어 100대1에 육박하는 학과도 있다. 체대 입시학원을 20년 넘게 운영해온 한 학원 대표는 “대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20대1 이상 경쟁률이 나올 수 있도록 수시 전형을 짜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대학도 있다”고 전했다. 수시 입시 인원이 많을수록 원서 접수 비용도 쌓인다. 모집인원이 20명인데 1000명이 몰리면 경쟁률은 50대1이 되고 1인당 원서 접수 비용을 7만원으로 계산하면 7000만원 수입이 생긴다. 대학으로서는 수시 전형을 진행할 경우 과정보다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수시를 선호하는 데는 이 같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수시 전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생부종합전형이다. 내신 등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 봉사활동, 수상 내역 등을 전반적으로 보는 전형이다. 체육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많은 학생을 뽑는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각 대학교가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비교적 수월하게 뽑을 수 있는 전형이다. 성적, 봉사활동, 경험, 수상 경력 등을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선발했다고 하면 탈락자들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면접 반영 비율이 감소하는 것도 최근 체대 입시 특징이다.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등은 수시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 면접은 정성적 평가다. 면접관의 선호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실기시험도 감소하거나 간소화하는 추세다. 면접 없이, 실기시험까지 없이 오직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한다면, 대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고교 운동부 지도자 간 뒷거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입학과 관련된 잡음과 추문도 감소하게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이상 서울 캠퍼스)는 특기자 또는 특별전형은 제외하고는 수시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다. 정시만으로도 뛰어난 학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국대, 건국대 본교는 수시 선발에 소극적이다. 반면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는 수시 선발 트렌드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대학들이다. 그러나 전국 체육대학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수시에서는 실기 비중이 강화됐고 정시에서는 수능이 극대화됐다고 볼 수 있다. 동국대는 실기 비중을 높게 요구하는 대표적인 학교다. 실기 비중을 수시에서 60%, 정시에서 50%로 정했다. 실기 비중을 높임으로써 실기 비중을 줄인 다른 대학과 다른 차별화된 수시 전형을 만들었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효과도 봤다.

표 1. 주요 대학교 체육대학 입학 요강(2020학년도)

대학	학과	수시				정시			
		인원	전형	실기 시험	최저 학력	인원	전형	실기 시험	최저 학력
서울대	체육교육과	0명				22명	수능80% 실기20%	O	X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	0명				45명	수능+실기 (+면접)	O	X
고려대	체육교육과	0명				42명	수능70% 실기30%	O	X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20명	서류+면접	X	X	20명	수능40% 내신40% 실기20%	O	X
경희대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골프산업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114명	학생부종합 논술우수	X	O/X	100명	수능 100%	X	X
중앙대	체육교육과	15명	서류100%	X	X	15명	수능80% 서류20%	X	X
한양대	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14명	학생부 100%	X	X	36명	수능(+실기)	O/X	X
동국대	체육교육과	28명	학생부40% 실기60%	O	X	10명	수능40% 실기50% 학생부10%	O	X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32명	서류(+면접)	X	O	20명	수능40% 실기60%	O	X

\* 특기자(학생선수),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 국가보훈 지역균형 등)은 수시 인원에서 제외함. 특기자는 거의 대부분 수시를 통해서 선발됨. 특별전형은 소수임.

\* 수시를 통한 특기자 선발인원 : 서울대(10명) 연세대(44명) 고려대(38명) 성균관대(36명) 경희대(56명,정시 27명 별도) 한양대(10명) 동국대(22명) 이화여대(0명)

이처럼 수시에서 실기시험이 강화되면 학업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이 물리게 마련이다. 내신성적 간 점수 편차를 줄이는 동시에, 실기 점수 차이를 확대하면 학업성적이 부족해도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비밀 언덕’이 되기 때문이다. 뛰어난 운동능력으로 부족한 학업성적을 만회하고도 남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교와 중하위권 대학에게 모두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다. 체대 입시학원 관계자는 “경쟁률이 높을수록, 지원자들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운동과 공부를 모두 잘하는 학생이 합격할 수밖에 없다”며 “아주 냉정하게 말한다면 다수 학생은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들러리를 서는 셈”이라고 말했다.

체대 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입시요강 자체가 무척 복잡한 데다 매년 자주 변한다. 입시 결과를 상세하게 공지하지 않은 대학도 적잖다. 게다가 고등학교 진로담당 교사들은 체대 입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체대 입시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이 있는 체육중점학교 등 일부 고교 학생들을 제외한 다수 학생들은 체대 전문 입시학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체대 입시학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대략 전국에 3,000~3,5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7~8년 전에는 학생이 300명 넘는 대형 학원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100명만 넘으면 큰 규모에 속한다. 과거 대규모 학원들에서 일한 강사들이 나와서 따로 학원을 냈기 때문이다. 현재 학생수가 100명~150명 정도인 체대 입시학원은 전국에 100개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체대 입시학원은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통해 수시 입시를 확대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대 입시학원은 지금도 실기 위주로 지도하고 있다. 지도자들이 과거 실기 위주로 대학교에 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수시 전형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 수시 전형을 지도할 수도 없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려면 실기 경력 이외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학원 밖에서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걸 반가워하거나 지도해줄 수 있는 학원은 거의 없다. 한 체대 입시 학원 관계자는 “대부분 체대 입시학원들이 수시 전형을 잘 모르는 데다, 정시가 12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수시는 경험에 불과하다’며 학생들을 정시 중심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체대 입시 학원들은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체대 입시를 준비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지금이라도 깨닫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대 입시 진로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고교 체육 교사와 진로 지도 교사, 체대 입시학원 강사부터 수시 전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II. 체육대학 수시입시에 대한 견해 및 방침

수도권 유명대학 중 수시 전형을 중심으로 체대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은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사범대학)다. 한국 최초 체육대학을 만든 경희대는 다양한 수시 전형을 통해 신입생들을 많이 뽑는다. 수시 모집인원이 전체 69%에 이르며,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실기시험을 없앴다.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대학은 국내 체육대학 중 수시 입시를 리드하는 학교다. 성균관대는 특기자들의 학업 능력을 강화하고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특기자 전용반을 운영하면서 전문 선수 육성에서 벗어나 생활체육 전문가 양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균관대는 내년 입시부터 내신 6등급 이상을 받지 못한 특기자는 선발하지 않겠다고 파격적으로 선언했다. 중앙대 체육교육과는 사범대학이지만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실기시험을 없앴다. 예비 체육 교사를 길러내는 사범대학으로 하기 힘든 조치다. 송종국 경희대 체육대학장, 장경로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대학 학장, 정인경 중앙대 체육교육과 학과장을 만나 체대 수시 입시에 대한 견해와 향후 방침을 들어봤다.

### 1. 경희대학교

경희대는 한국 대학 최초로 체육대학을 만든 한국 체대 메카다. 올해로 경희대는 창립 70주년이다. 체육대학은 초기부터 있었고 1955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될 때 체육학과 정원이 280명이나 됐다. 현재 체육대학은 경기 용인 국제캠퍼스에 있다. 체육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의학과, 골프산업학과, 태권도학과 등 학과가 5개다. 체육대학 중 학과가 5개 이상인 4개 대학 중 한 곳으로 특기자를 포함해 총 327명을 뽑는다. 인원으로는 한국 체대, 용인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그중 69%인 215명을 수시로, 나머지 31%는 정시로 뽑는다. 수시에는 그동안 실기시험이 없었고 정시에도 지난해부터 실기시험을 뺐다.

#### ■ 송종국 경희대 체육대학장 인터뷰



-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실기시험을 없앴다.

“체육대학 학생이라고 무조건 운동을 잘해야 한다는 시대는 지났다. 운동을 상대적으로 못해도 행정, 외교,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운동기술과 학문적 이론을 동시에 지도해 실기와 이론이 균형 잡힌 인재를 육성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경기뿐만 아니라 외교,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IOC에 가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육대학이 더 이상 선수 육성에 매달리면 안 된다.”

- 실기가 다소 부족한 신입생도 적잖을 것 같다.

“실기 수업을 강화했다. 중고시절 부족한 운동능력은 대학 시절 학습을 통해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는 전체 체육대학 학생들에게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체육의 중심은 결국 실기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 수업도 강조한다.”

- 일반적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체대 입시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실정이다.

“인간의 뇌는 7세까지 95%가 완성된다. 그래서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스포츠로 인지능력을 키워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0세부터 10세까지 체육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안타깝다. 체육은 예술과 달리 선택이 아닌 기본이다. 어릴 때부터 공교육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체대에 들어가는 데 실기가 필요하다면, 그건 공교육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체대 입시 상담도 공교육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체육중점학교를 보편화하면 좋겠다.”

- 경희대에는 13개 종목에서 전문 학생 선수단이 있다.

“태권도와 골프는 수시와 정시에서 골고루 뽑는다. 나머지 11개 종목 학생 선수는 수시 실기우수자전형으로 선발한다. 선수단이 없는 종목에서도 학생 선수가 올 수 있도록 길도 동시에 열어놓았다.”

- 다중전공, 전과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가진 신입생들이 오기 때문에 대학 시절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다. 체육이 아닌 아예 다른 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학과에서 체육을 전공하려 오는 경우도 있다. 체대 내부에서도 다중전공이 활성화돼 있다.”

## 2.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대학은 수원에 있다.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대학은 2012~2013년 등 이른 시기부터 수시 입시를 리드한 학교다. 다른 학교는 아예 수시 전형을 실시하지 않거나 수시 모집 인원이 소수일 때도 성균관대는 수시 전형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스포츠과학과 정원은 40명(특기자 36명 제외)이다. 지난해에는 수시로 30명을 뽑았지만 올해는 20명으로 줄였다. 특기자들의 학업 능력을 강화하고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특기자 전용반을 운영하는 게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대학은 내년 입시부터 내신 6등급 이상을 받지 못한 특기자는 선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포했다.



■ 장경로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대학 학장 인터뷰



- 수시 선발 인원을 줄인 게 눈에 띈다.

“수시 신입생들이 정시에 비해 내신이 높다. 그런데 100m를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학생이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 몸으로 체육을 체험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신체활동이 체육의 중심이고 정체성이다. 학업 능력이 좋은 수시 입학생들이 체육계 취업이 어려워지자 경영학, 신문방송 등 다중 전공하면서 졸업 후 스포츠가 아닌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걸 많이 봤다. 그것도 줄이고 싶었다.”

- 좋은 신입생을 뽑아 체육계로 진출시키지 못한 이유는.

“내부적으로 커리큘럼 변화가 늦은 탓이다.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시절에는 체육 역사, 철학, 사회학 등이 수업의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스포츠법학, 스포츠외교론, 스포츠커뮤니케이션, 인체병리생리학, 스포츠와 인공지능,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 등 시류에 맞는 수업들을 많이 한다.”

- 정시에는 실기 시험을 실시한다.

“실기를 고수하되 종목은 줄였다. 체대 입시학원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올해 실기는 100m 달리기, 핸드볼 공 멀리 던지기 등 두 개뿐이다. 학원에만 배울 수 있는 높이뛰기 등은 없었다. 실기시험 비중도 20%에 불과하다.”

- 특기자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일반 학생과 똑같은 수준의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특기자 전용반을 개설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 학기 3과목(생리학, 역학, 해부학)을 한데 묶어 특기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녁에 수업을 진행했다. 내가 성대에서 교편을 잡은 지 19년이 됐는데 나와 학생 모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업이다. 전용반 수업에서는 특기자 학생들이 맨 앞줄부터 앉는다. 서로 수준이 비슷하다 보니 주눅 들지 않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다. 과제물을 너무 잘 해 와서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다.”

- 특기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지도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특기자 학생들이 졸업 후 프로 또는 실업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도 학생 선수들이 프로행만 꿈꾸는 건 잘못됐다. 특기자 학생들에게 프로에 못 가면 뭐 할 거냐고 물

어보면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한다. 나는 특기자도 이론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특기자 학생 중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더러 생기고 있다. 등록금과 기숙사 혜택 등을 포기하고 일반 학생이 되겠다는 것이다. 운동부 감독들은 싫어하지만 특기자 학생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이라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특기자 학생들이 전문 선수가 아닌 생활체육 지도자 진로를 선택하기를 희망한다.”

- 성균관대에는 전문 학생 선수단이 꽤 있다.

“축구, 농구, 배구, 육상, 골프, 검도 등이다. 개인종목 선수도 1~2명 선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들을 체육수업에 투입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도 고등학교 시절 스키, 테니스을 한 학생 선수들이 재학 중이다. 우리 대학은 일단 운동부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 선수가 아니라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해서 생활체육 지도인력을 키워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행정 및 산업 관련 스포츠 인력을 키우는 것, 생활체육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두 가지 큰 축이다.”

- 2021학번 학생 선발부터 특기자들에게 높은 내신 등급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2021학번 신입생부터 내신 등급이 6등급 이상이 되지 못하는 특기자 학생들은 받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내신이 8~9등급인 특기자들은 우리 학교에 올 수 없다. 스포츠단장 교수와 합의를 마친 뒤 교육부에도 알렸고 이미 확정된 부분이다. 어차피 졸업 후 프로에 가기 힘든 만큼 어느 정도 학업 능력을 갖춘 특기자를 입학시킨 뒤 교육해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인력으로 키우겠다는 의미다.”

### 3. 중앙대학교

중앙대 체육교육과는 서울 캠퍼스 사범대학교 산하에 있다. 정원은 30명이다. 지난해부터 수시로 15명, 정시로 15명을 뽑고 있다. 올해도 인원 배정은 똑같다. 수시에서 실기시험은 2013년부터 사라졌고 지난해부터 정시에서도 실기시험이 빠졌다. 체육 교사를 키워내는 사범대학 입학시험에서 실기를 완전히 없앤 건 파격적이다. 중앙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1960년 문리과대학 이학부 체육학과로 설립됐고 1963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로 명칭을 바뀌었다. 축구, 농구, 야구, 골프 등 특기자 학생들을 뽑는 스포츠과학부는 경기 안성에 있고 모집인원은 50명이다.

■ 정인경 중앙대 체육교육과 학과장 인터뷰



-수시와 정시 모두 실기시험을 없앴다.

“정시도 지난해부터 실기를 없앴다. 올해가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실기시험이 없는 두 번째 해다. 수시에서는 서류 100%로 15명을 뽑고 정시에서는 수능 80%, 학생부 20%로 나머지 15명을 선발한다. 실기 능력이 부족해도 체육 관련된 다른 분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졌다. 굳이 실기 능력을 입시에서부터 보지 않아도 된다.”

- 예비 체육 교사를 뽑는데 실기를 없애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체육교육학과 중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실기를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초기에는 졸업생들의 저항도 많았고 재학생들도 체육의 정체성을 잃는다고 걱정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앙대만 보고 입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기 수준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실기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입학 후 실기교육을 강화했다. 1학년 진로 관련 프로그램인 CAU 세미나를 통해 체육교육과에 맞게 주당 1회씩 실기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 항목별로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실기 능력을 졸업 요건으로 만들었다. 재학생들은 실기를 열심히 배워야 한다.”

- 수시 모집 인원을 5명에서 15명으로 단번에 크게 늘린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6년 동안 매년 수시로 입학한 5명을 살펴봤는데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중앙대는 전체적으로 수시 전형이 50% 이상이다. 우리 학과도 대학 방침에 부합하는 동시에 종합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사회가 더 필요로 한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그래서 영양학, 스포츠산업, 유아체육, 공학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개설 또는 보완했다. 우리는 교직과 비교직으로 커리큘럼을 구분한다. 그래도 아직은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70% 정도에 이른다.”

- 요즘 임용고시도 실기보다는 이론과 지도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실기보다는 학업 능력이 좋은 신입생을 뽑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임용고시는 1,2차로 진행된다. 1차 지필고사 성적이 50%, 2차 그 외 평가가 50%다. 실기 비중은 2

차 평가 50% 중 15%에 머물고 있다. 실기보다는 이론과 지도 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셈이다. 졸업생을 포함한 우리 학과 출신이 지난해 15명 정도 임용에 성공했다. 학과장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매년 신입생이 30명인 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다.”

- 정시와 실기를 중시하는 다른 대학도 중앙대를 따라오리라 예상하나.

“그렇다. 대학별로 선호하는 인재상은 다르지만, 사회가 너무나 다양한 인재들을 원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학도 여기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 대학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학원에 가지 않아도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 공교육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기 없는 수시가 확대된다면, 고등학교에서 내실 있는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올해 신입생 중 체대 입시학원에 다닌 학생은 얼마나 되다.

“체감적으로 1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아예 체대 입시학원을 가지 않은 친구들도 적잖다. 체육중점학교 출신 신입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관심만 가진다면 학생들이 체대 입시학원에 가지 않아도 체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다.”

### III. 맺음말

취재를 종합해보면 앞으로 체대 입시에서 수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도 다양한 인재를 원하고 있고 대학과 학생도 이런 추세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위 ‘스카이’ 등 최정상급 대학교들도 이런 흐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기시험 비중 축소 및 간소화 등 형태로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지금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이끄는 수시 전형 확대 움직임은 수도권 다른 대학교에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된다. 다만 학생 모집에 난항을 겪는 지방대학교가 이런 움직임에 쉽게 동참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다. 어쨌든 체대 수시 입시는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체육 교사, 진로상담 교사들부터 체대 수시 입시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스포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별도 반을 꾸려 운영하는 체육중점학교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체대 입시학원들도 기존 실기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수시 입시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접근법을 연구하면서 수행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 발간목적: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는 스포츠산업 전반 현안을 집중 분석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포츠산업 성장에 필요한 대안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편집위원회

편집 위원: 정지명(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유의동(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김상훈(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수(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고경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신성연(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박선영(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